
第127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保健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2001年5月21日(月) 午後2時

場所 保健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江南病院主要懸案業務報告의件

審査된案件

1. 江南病院主要懸案業務報告의件 ... 1面

<14時 17分 開議>

○委員長代理 李政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臨時會 제2차 保健社會委員會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金權宇 江南病院長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연초에 보고받은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江南病院主要懸案業務報告의件

○委員長代理 李政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江南病院主要
懸案業務報告의件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金權宇 江南病院長은 나오셔서 주요현안 업무에 대하여 보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院長 金權宇; 江南病院長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인사말을 간단히 제가 위원님들께 드리고
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분주
하신 가운데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해 두 번째로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평소 강남병원에 대해서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
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올해 들어 방송 등 언론에서 국가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과
다하고 허위청구 등, 이 모든 것이 의료계의 탓으로 원인을
전가하고 있으나 사실은 저희 같은 공공병원은 특별히 관련
이 없는 사항으로 나름대로 꾸준히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
음을 보고드립니다.

지난해 의약분업 이후 개원의를 제외한 대다수 병원들이
경영상 어려움 속에 처해 있고 이러한 내용들이 아시는 바
와 같이 일간신문에 시리즈로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롭게 유지하면서 말은 바 소임을 다
하여 새롭게 변모하는 도약의 해가 되도록 전 임직원이 진지
하게 고심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강남병원은 환자진료 등 여러 부문에서 기복

없이 지속적인, 미미하나마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어 올 하반기 업무보고시에는 월등히 개선된 경영성과를 보고드릴 것이 자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아무쪼록 지켜봐 주시고 혹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은 질책하시면서 변함없는 배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幹部紹介:管理理事 李奭遠, 診療理事 兪炳旭, 企劃院務部長 朴世雄, 總務部長 金南薰, 看護部長 李在善, 教育研究部長 金東進, 中溪老人福祉館長 金貞均, 藥劑課長 朴松姬)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의 1페이지부터 기본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사항보고 순이 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政恩; 네, 洪承采委員長님.

○洪承采 委員; 위원장님, 7페이지부터 하시죠. 기본현황은 아시니까 7페이지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政恩;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7페이지부터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院長 金權宇; 감사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報告)

江南病院 主要業務報告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李政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남병원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능한 한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 주시고 그 이상의 질의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마치신 후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姜榮元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姜榮元 委員; 병원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가에서 무슨 상 받으신 것 있죠?

○院長 金權宇; 네,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姜榮元 委員; 어떤 연유로 받았습니까?

○院長 金權宇; 行自部에서 하는 지역의료에 대한 공로가 좀 있다고 해서 받았습시다만.....

○姜榮元 委員; 의료환경 개선해 가지고 서울시에 있는 병원 중에서 행정서비스 같은 게 잘 된다고 했고요.

또 두 번째는 민간경영을 완전 도입시켜 가지고 경영혁신 바람을 불렀다는 성과에 의해서 병원운영개선 기여도, 이것으로 해 가지고 국무총리실 표창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여튼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또 전번 2월에 작년하고 완전히 달라진 업무보고였었는데요. 올해 업무보고는 또 진일보됐고 이게 그대로 이행이 되기만 한다면 사실 민간병원보다도 의료 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는 더

완벽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일단은 서류상으로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직접 집행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100% 이렇게만 해 주신다면 국무총리 표창 아니라 국가유공 최고 좋은 무궁화장 있죠? 그것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할 정도예요. 그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병원 보면 15페이지, 병원 특화사업 내실화라든가 그 다음에 16페이지 지역 개원의 협진체제 구축, 그 다음에 17페이지 응급센터 활용문제 등 이런 것은 아주 잘 저기 된다고 얘기 들었고 그 다음에 3.3.3 실천운동 전개, 이런 것들이 과연 새로운 민간경영기법의 천재적인 어떤 발상이라고 확신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치하드리고요.

○院長 金權宇; 감사합니다.

○姜榮元 委員; 제가 질문하고 싶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강남병원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제가 시정질문 때 질문했던 강남병원 본관건물 보강공사 있죠? 그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다 내려왔습니까? 이행여부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관건물 보수보강에 시비.....

○院長 金權宇; 지난해 일부 본관건물 건물안전구조진단결과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배정 없이 저희 병원 예산으로 일단 철거를 했고 그 예산은 올해 예산에 들어왔습니다.

○姜榮元 委員; 다행입니다. 그리고 강남병원 의료장비 보강건, 그 건은 다 들어왔습니까?

○院長 金權宇; 지금 시담중에 있습니다. 시담중에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시기를 택해 가지고 그 때 환율이 너무나 들쭉날쭉해 가지고 잘못하다 보면 환차손 때문에 충분한 좋은 장

비를 못 살 것 같아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엔화로 할 것인지, 달러로 할 것인지 또는 유로화로 할 것인지 그 때 그 때 유리한 것으로 해서, 지금 임박해 있습니다.

○姜榮元 委員; 그러면 이게 좀 느려도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질이라든지 또는 경영내실화에는 차질이 크게 없겠습니까?

○院長 金權宇; 네, 한두 달 가지고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서울대학병원이나 삼성병원과 지금 저희 병원하고 협진체제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 병원 전문의가 환자를 데려가서 거기 시설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비가 도입되면 독립해서 저희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외부 환경 때문에 장비도입이 조금 고려할 점이 많다는 것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姜榮元 委員; 알았습니다. 한두 달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효율적인 장비이고 그 다음에 고성능 장비를 싸게 사기 위한 경영의 내실화의 문제라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운영에 큰 도움이 되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실 민간경영기법 같은 것 제가 봐도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들이 와 있고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데 이제는 그게 어느 정도 방향이 설정됐으면 그 다음에 체계를 잡아나가야 될 경우에는 대외적인 홍보내실화거든요.

사실 강남병원 아직도 일반 시립병원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제는 외부의 사설병원하고 경쟁해서 환자를 우리한테 끌어들이 수 있는, 보라매병원의 대기일이 15일 내지 16일과 달리 여기는 대기일이 1일 내지 2일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여기도 환자대기율을 최소한 5일 내지 7일 정도를 잡아놔야지 이게 어느 정도 효율성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다면 5일 내지 7일이 되려면 대외홍보가 많이 돼야 돼요.

사실 지금 정도 보면 보라매병원은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인식돼 있기를 시립병원을 벗어나서 굉장히 실력이 좋다는 얘기 나와 있고 강남병원도 사실 그렇게 전파되고 있지만 아직 미약합니다. 대외적인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의료 질의 문제에 있어서 의사를 3년 만에 한 번씩 재계약 하죠?

○院長 金權宇; 그렇지는 않습니다.

○姜榮元 委員; 원장님만 3년에 한 번?

○院長 金權宇; 네, 그렇습니다.

○姜榮元 委員; 그러면 의사 분들은 어떻게, 한번 들어오면 끝까지 계속 계시나요?

○院長 金權宇; 네, 그렇습니다.

○姜榮元 委員; 그러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가 없었습니까?

○院長 金權宇; 매너리즘에 빠지는 의사들이 일부는 있습니다만 그런 의사들은 내부 분위기에 견디지 못해서 개업을 하거나 다른 데로 나가거나 대개 3년 이내에 판가름이 나겠습니다.

○姜榮元 委員; 저는 사실 의사에 대한 재계약 건을 3년, 5년 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제도는 현실적으로 없고, 그렇다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자연적인 내부의 분위기나 바람에 의해서 그들이 도태되는 방법을 체크하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요. 아직도 간호사 분들이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조금은 미약한 것으로 저는 듣고 있어요. 거기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셔서 훌륭한 강남병원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院長 金權宇; 감사합니다.

○姜榮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政恩; 姜榮元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洪承采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洪承采 委員; 강남병원의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에게 수고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중계노인복지관에 웨이팅리스트, 소위 대기하시는 분들이 총 얼마나 되시죠?

○院長 金權宇; 이것은 제가 한 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洪承采 委員; 60명, 대개 지금 현재 뭐라 그럴까요, 서클레이션이라고 그러지요?

○院長 金權宇; 네.

○洪承采 委員; 그렇게 순환되는 그런 비율이 중계노인복지관의 경우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院長 金權宇; 관장님이 말씀하시도록 이리 나오세요?

○洪承采 委員; 원장님 앞에서 답변을 하시지요.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委員長代理 李政恩; 원장님은 앞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洪承采 委員; 위원장님 허락이 계셨으니까 앞에서.....

○中溪老人福祉館長 金貞均; 허락하신다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계노인복지관 관장입니다.

지금 입소 효율성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효율성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입소하는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생활보호자는 그분들을 다시 환원되어서 그쪽에서 모실 수 있는 여건도 아니지만 그 질병 자체가 치매나 중풍이기 때문에 장기화로 갈 수 있는 환자이니까 그분이 대개 입소가 되어서 돌아가셔서 순환이 되는 경우가 90% 이상이 되고, 지금 6년 동안 9월 23일이면 만 6년이 되는데 그 동안에 집으로 가신 분은 25명, 그 다음에 다른 시설로 가신 분이 지금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洪承采 委員; 사망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院長 金權宇; 1년에 약 65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洪承采 委員; 그러면 결국은 한 달에 평균으로 잡으면 한 달에 6명 정도 들어가고 6명 돌아가시든 다른 데로 가든 이런 상황인데 병원특화사업과 병원이 증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1층 노인병동, 이것이 함께 영켜드는 것이지요?

○中溪老人福祉館長 金貞均; 네, 그렇습니다.

○洪承采 委員; 그래서 이게 복합사업이기 때문에 관장님께 직접적으로 여쭙어 본 것인데 지금 60명의 웨이팅리스트를 해결하는 것만도 1년이네요, 그리고 계속 생길 것이고?

○中溪老人福祉館長 金貞均; 계속 접수가 되는 것입니다.

○洪承采 委員; 그래 지금 이 분들에 대한 하루기준으로 한 분당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지요?

○中溪老人福祉館長 金貞均; 서울시 국고 일부 하고 서울시에서 전액 예산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총 예산으로 이 분들을 계산해 보면 한 달에 98만 9,000원입니다.

○洪承采 委員; 한 달에 1명당 99만원, 그러면 도시저소득가

계 평균수입보다 좀 높나요?

○中溪老人福祉館長 金貞均; 높습니다.

○洪承采 委員; 그러니까 치매나 중풍, 이 환자 분들에게 국가가 부담하는 여러 가지 역할이 도시저소득 계층의 월평균 수입보다 높은 대우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지요?

○中溪老人福祉館長 金貞均; 그렇습니다.

○洪承采 委員;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이런 결론이 되네요. 나중에 젊었을 때는 좀 가난해도 생활보호자 지정 받으면 국가가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노후가 오히려 자식 있는 사람들보다 더 편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나요?

○院長 金權宇; 98만원이 제가 보기에 그 중에 상당부분 의료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조금 우리 도시가계소득하고는.....

○洪承采 委員; 네, 뭐 그럴 수는 없고요, 소득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정도가 되고, 병원에서 이 시설들을 더 증축하게 되면 56병상, 여기는 전부 치료시설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院長 金權宇;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중계노인복지관에 좀 문제가 생겨서 복합질환으로서 강남병원에 온다 하더라도 저희 병원수용능력이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간 할 수 없고 해서 참 애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래 두면 결국 병실 이용률이 떨어지고 해서, 또 중계노인복지관의 수용환자는 전부 의료보호환자이기 때문에 이분들만 할 수도 없고 또 일반병실에 우리 노인환자가 많습니다.

보험환자나 일반환자로서 노인환자가 많은데 이런 환자들은 사실 요양할 수 있는 병동시설이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그런 환자를 이 병동으로 뽑음으로 해서 소위 일반환자와 구별해서 일반환자의 병실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洪承采 委員; 그러니까 강남병원으로 오신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을 바로 중계노인복지관에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院長 金權宇; 없습니다.

○洪承采 委員; 그러니까 지금 바로 넣을 수도 없는 상황 아니에요.

언제 또 다시 돌아갈지를 모르는 상황이니깐.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이것은? 이것은 델리케이트하지요? 굉장히 난감한 일이네.

○院長 金權宇; 중계노인복지관에 갈 환자가요?

○洪承采 委員; 아니, 다시 병원에서 중계노인복지관에 계시다가 병원으로 왔다, 그래도 그 빈자리에 다른 분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院長 金權宇; 네, 그렇습니다.

○洪承采 委員;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대기자 명단은 있는 것이고 들어갈 수는 없고 그런 난감한 상황 아닙니까, 또 정원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院長 金權宇; 그냥 강남병원에 그대로 입원시키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洪承采 委員; 장기입원으로?

○院長 金權宇;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 노인병동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洪承采 委員; 그래 본들 56병상이 더 늘어난 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난해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조심스럽게 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까? 지금 복지비 증대,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계층의 소득에 대한 보장,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어 있고 소시얼 세크리트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사회안전망이 형성이 되고는 있지만 이런 것은 정말 바닥이 안 보이는 투자거든요.

바닥이 안 보이는 투자,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바로 뒤에 부분에 있는 과다 의업미수금, 여기하고 또 연결이 되고, 이게 전부가 다 중계노인복지관, 병원, 그리고 미수금 이게 3자 연대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병원이 어쩔 수 없이 무지하게 지금 어려운 경우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했을 때 예를 들면 강남이 이렇게 많은 이유도 있지요. 물론 그런 것이 있기가 하겠지만 이게 3자가 다 연대란 말이에요.

병원증축문제, 그 다음에 중계노인복지관의 수용시설 미약, 그 다음에 병원의 적자로 이어지고 그리고 계속되는 미수금 발생이 3자가 이렇게 트라이앵글이면 지금 이 상황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것 아니냐?

향후 처리대책, 예를 들면 관련부서, 회전율이 120일인데 일단 기본지급이 120일인데 지금 갖고 있는 56억 상당의 이런 과다미수금을 원장님이나 병원측이 의도하시는 대로 제대로 와서 좀 이렇게 병원수급이 잘 되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고요.

이중에서 일부는 병원 자체수입으로 의료장비에 대한 현대화 계획, 이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절단, 저것도 절단, 이게 병원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경영연구도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장님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보

다 전부 다 한 가지 문제 아닙니까? 즉 시작하는 그런 문제들이니까 한번 소신껏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어떻게 하면 이 고리가 풀리겠는가?

○院長 金權宇; 일선에서 조그마한 병원을 맡아 있는 우리 원장이나 직원들이 사실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정책부서에서 장기간의 안목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이런 마인드가 확산되는 것은 확실히 저희가 감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경제가 어려워서 여기에 과감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여건이 되면 아마 이런 데도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밀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자꾸 투자해서는 안 되고 저희같이 병원을 이런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저비용 고효율로 되도록 나름대로 지혜를 짜서 시스템을 그런 방향으로 각자가 하는 것이 국가적인 손실도 막을 수 있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洪承采 委員; 결국은 이런 3·3·3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이고요, 나머지 예를 들면 하드웨어 자체가 프레임이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院長 金權宇; 그렇습니다.

○洪承采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예를 들면 저희 위원회에서 이러한 용의들이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계속 밀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런 정말 저효율로는 못해 먹겠다 이런 식이 된다고 보면 저희 위원장님이나 저희 위원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시의 예산부서나 정책부서의 장을 불러서 강남병원에 대한 경영효율

화, 그 다음에 진료수준의 확대, 진료수준의 보편적인 기능의 다양화, 그리고 특화, 이런 것들에 관한 한 4·5가지의 문제를 묶어서 정책부서와 긴급협의를 한번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특히나 IMF 이후에 의료혜택에 대한 요구는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상당부분, 그래서 이런 업무보고서 정말 중요하지만 이것을 한 데 묶어서 한번 보자 하는 제안을 병원 측에 드리고 위원장님께 그런 제안을 하나 드려보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院長 金權宇;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李政恩; 네, 高明坤委員님.

○高明坤 委員; 高明坤委員입니다.

현재 서울시의회 업무보고와 현장 방문시 주관 부서장이 참석을 협조요청 하는 그런 내용의 공문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지방공사 강남병원이나 보라매·동부·아동·은평·서대문병원에 관련한 업무보고시에는 保健福祉局의 醫藥課長이 배석해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서울시의회가 공문을 발송해서 협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시작 직전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고 또 현재 다른 회의 참석을 핑계로 하여 회의참석이 안 되고 있어 부득이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委員長代理 李政恩;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5時 03分 會議中止>)/>

(15時 16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李政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네, 高明坤委員님.

○高明坤 委員; 高明坤委員입니다.

지방공사 강남병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주의를 촉구하고 또한 실제로 醫藥課長이 참석해서 병원들의 업무보고를 같이 함으로 인해서 의사소통의 하나의 시간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서로의 어떤 문제점을 털어놓고 얘기함으로써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집행부서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의 주의 촉구를 요구합니다.

○委員長代理 李政恩; 방금 高明坤委員님께서 발언하셨다시피 지난 3월에 집행부에 위원회가 열렸을 때 업무보고나 또는 현장방문시에는 주관부서장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醫藥課長도 또 保健福祉局長도, 두 분이 다 안 계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촉구하는 바이고 조속한 시간에 빨리 醫藥課長님께서 참석토록 대리 오신 계장님께서서는 수소문해서 참석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順子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順子 委員; 우선 오늘 주요업무보고서를 받고 참 내실이 엄청나게 강화됐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12월에 업무보고서를 받았을 때는 의사들이라서 이렇게 모르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업무보고서를 작성해서 이해하기 좋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시립병원은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오래된 병원인데 건물의 노후도 물론 그렇지만 그 지역에 좋은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방문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환자들이 방문을 안 하는 이유는 물론 시립병원이라는 개념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선 교통이 상당히 애매하게 돼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그 교통문제에 대해서 불편한 것을 느끼지 못하는지 그것을 묻겠고요.

그 다음에 원장님이 강남병원에 대한 외부의 마케팅전략이 과연 잘 돼 있는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제가 시립병원에 전화를 건다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의 리스트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곧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시민들은 전화를 빨리 거는데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홍보도 겸할 겸해서 지난번에 여성의원들이 호주에 방문했을 때 제가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상당히 좋겠다 하는 것, 이것이 우리 女性政策官님한테 자료로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표를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이 뒤에는 쇠

붙이에 붙이면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호주의 에머런스 전화번호라니까 급할 때 하는 전화번호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매맞는 여성, 자기가 어디로 가서 숨어야 되는가 이런 것, 상담소 이런 데 전화번호가 이 안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적용해서 우리 강남병원이 거기 오는 환자분들한테, 약봉지 그런 데는 전화번호가 있지만 급할 때 이런 전화를 여기에 해 달라고 해서 이것이 하나의 주부들이나 가정에서 잘 부착해서 눈에 띄게 이렇게 만들어서 해주면 강남병원 이용자들이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이런 것을 제시해 봅니다. 또 이런 카드도 만들어서 수시로 그 분들은 PR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한번 적용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 오는 방법이라든가 병원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이 뒤에 써서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데서는 너무나 큰병원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광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환자가 가고 있는데 우리 강남병원은 그렇게 또 많은 환자가 밀려와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홍보전략을 좀 사용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洪承采委員님이 물어보니까 대기율이 너무나 낮아요. 다른 병원에서 한 번 진료받으려면 이것은 비교가 안 되겠지만 중앙병원에서 한 번 진료받으려면 한 25일 정도 있다가 와라, 40일 있다가 와라, 특별히 연락할 때 그 때 와달라 뭐 이런 얘기를 듣는데 참 대기율이

너무 낮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마케팅도 한번 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 8페이지에 보면 이용에 편리한 병원 운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병원 앞이 원외이기 때문에 교통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더군다나 강남병원을 가는 환자들은 대개가 아주 서민들입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보다 보유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현대 중앙병원 같은 데는 셔틀버스를 수시로 돌리고 있습니다.

빈 버스가 돌아가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호 운전하시는 분이 한 18명 정도 있는데 이 중에 좀 무리를 해서라도 운전하시는 분들을 몇 분 차 출해서라도 강남병원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어떤가 그 셔틀버스 운영 정류장 그런 것도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병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남병원은 참 특수해요. 한 번 들어갔다가는 꼭 그 길로 나와야 되고 다시 뒷걸음질도 할 수 없는 그런 병원이지요? 앞에 그렇게 생겼죠? 또 전철에서도 환자가 걷기에는 좀 멀니다. 그래서 셔틀버스 운영을 하면 좀 어떻겠는가 그런 것을 한 가지 여쭙보고요.

11페이지에 보면 물류관리시스템을 혁신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적정관리로 전환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재고정리 모든 것이 전산화하고 있나요?

○院長 金權宇; 네, 그렇습니다.

○李順子 委員; 그러면 오늘이 21일, 오늘부로 의약품에 관한

재고정리 자료를 제시해 주면 연말에 가서 우리 강남병원이 얼마만큼 이것을 잘 유지했는가를 제가 참고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院長 金權宇;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李順子 委員; 오늘까지니까 천천히 해서 열흘, 20일, 좋습니다.

○院長 金權宇; 신속하게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李順子 委員; 그러니까 5월 21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밑에 보면 사이버 상담을 해서 352건을 했다고 했는데 사이버 상담 352건이 대개 어느 지역에 편중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너 가지 질문을 드리면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면 의료기를 도입하는데, 노후기종을 교체하는 데 여러 가지로 환율문제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에 마음 든든합니다. 그러나 입찰방법에 있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16페이지 이 안에 제가 질문드린 것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것을 말씀해 주세요.

○院長 金權宇; 강남병원의 교통이 애매하게 돼 있는 점은 위원님 지적 사항이 옳습니다. 원래는 강남병원 뒷길과 앞길, 정문으로 가는 길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그게 도로폭이 얼마 되지 않으면서도 쌍방통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러시아워나 이럴 경우에는 꼭 막혀서 올림픽대로나 테헤란로에서 들어오는 데에만 1시간씩 걸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 교통국이나 우리 교통을 담당하는 경찰쪽에서 병원하고 해서 수년 전에 원웨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李順子 委員; 병원측이 요구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院長 金權宇; 네, 병원측이 요구해서 그래서 앞쪽은 강남경찰서쪽으로 올라가고 강남경찰서는 올림픽대로쪽으로 빠져서 어느 정도는 좀 해소 됐습니다만 그 길 자체가 너무 좁고 그래서 수년 전부터, 제가 원장하기 전부터도 먼저 원장님께서 그렇게 길을 넓혀달라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단계에서 그 앞에 보상문제 때문에 그것이 아니되고 원웨이로 해서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 시스템만 갖춰 가지고 그것이 오늘날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과거보다는 좀 개선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참.....

○李順子 委員; 교통문제는 개선이 됐는데 환자가 찾아오는 문제가 과거보다 환자들한테 더 불편하게 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院長 金權宇; 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량수도 증가하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병원 혼자서는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위원님의 제안이 있었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셔틀버스를 운영하려면 제가 보기에 상당한 예산이 들고 또 운전기사도 많이 채용해야 되고 셔틀버스 운영은 제가 안 해 봤습니다만 한두 대 가지고 될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장기연구과제로 저희한테 조금 시

간을 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아까 호주에서 한 그런 여러 좋은 자료들은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빌려 주시면 그것은 적극 홍보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적극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재고정리 5월 21일까지의 재고정리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이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이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기존에 한 2.3년 전에 했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서 그래도 마케팅이 제대로 되는 것은 저희 강남병원 홈페이지인데요,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상당히 미흡하나마 마케팅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順子 委員;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 맞는 여성들, 학대받는 쉼터, 이런 것을 홍보하는 호주 여성정책, 우리 나라 서울시로 말하면 여성정책관이 운영하고 있는 이런 것이어서 이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병원하고 연계되는 것은 아닌데 이것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강남병원에 오는 길을 알려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삼성병원에서부터 들어오는 길이라든지 또 운동장전철역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들어가는 길이라든지 이렇게 딱 해 주면 사실 운동장에서부터 강남경찰서로 가다가 강독으로 해서 후문을 활용하는 것은 저같이 거기 오래 산 사람이나 알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대개는 거기 지나가서 저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병원으로 들어가는 경

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편리하게 환자들이 빨리 찾아올 수 있게, 그전에는 버스를 그 앞에 딱 세우니까 그냥 거기서 내리면 강남병원에 들어가기가 좋았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쉽다 그런 뜻이고, 이것은 제가 모양만 보여 드렸지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院長 金權宇; 그것을 잠깐만 빌려 주시면 거기 내용이 같지는 않더라도 그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李順子 委員; 그 다음에 이 사이버상담 352건을 했는데 주로 어느 구역에 한해서 했었습니까?

○院長 金權宇; 서울시내 전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順子 委員; 서울시내 전역요. 그 다음에 아까 홈페이지를 최대한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네트워크해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데 제 개념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시립병원에 찾아가는 환자들의 대부분의 수준은 홈페이지를 가서 열어보고 그런 수준보다 낮지 않은가,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이런 것이나 들여다보고 아, 여기 병원이 몇 번이구나, 어떻게 가나, 이런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홍보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빨리 접할 수 있는 이런 것, 하루 좀 선생님들이나 또는 직원들이 전철에서 친절하게 우리 강남병원 카드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나눠주어도 그것 자체도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상으로 아까 몇 번 했다고 그랬지요? 17페이지, 그 화상진료가 10에서 20만원 수준의 통신료가 든다고 하는데 진료는 현재까지 3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院長 金權宇; 네, 그렇습니다.

○李順子 委員; 제가 지난번에 병원을 방문했을 때 화상진료 시스템을 보고 아직은 못했지만 이제 시험단계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이것이 효율적인 그런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번에 3명을 하고 나니까 원장님 판단이 어떠세요?

○院長 金權宇; 이것이 3건을 해 보니까 상당히 의사들 간에 외국 의사들 전문가하고 저희 병원 의사 이렇게 해서 토론도 해 보고 그 환자에 대해서 향후 치료에 상당히 유망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하드웨어를 저희 병원장비 중에 아날로그 장비가 많아서 그러는데 디지털로 해서 거의 다 되어 가니까 그것이 다 되면 상당히 활성화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李順子 委員; 그래서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은가, 서울 우리 시립병원으로서는. 왜냐 하면 지금 보라매병원에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또 다른 병원에 다니시는 분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아직 한국에서 그것을 사용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는 얘기가,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있어도 그것이 직접 환자에게 유용하게 쓰이기에는 돈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이 좀 낮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院長 金權宇;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 그쪽 대형 우수한 병원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李順子 委員;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엄청나게 돈을 절약을 하고 적자를 안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면을 봤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시스템이 그것 유지하는 데 한 달에 평균 얼마나 됩니까, 돈이?

○院長 金權宇;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장소만 제공해 주고 거기에 벤처기업이 하나 들어와서 그것을 전부 중개하는 것을 전부 그 회사 자체에서 맡고 있습니다.

○李順子 委員; 그래요?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저는 돈이 안 든다고 그러면 다행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院長 金權宇; 안 듭니다.

○李順子 委員; 정말 우리 병원으로서는 투자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장소 제공만 해 주고 화면만 볼 수 있다 그것이지요?

○院長 金權宇; 네.

○李順子 委員;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선생님들이나 병원 직원들이 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근무시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5시인데 어디 갔느냐 그러면 잠깐 밖에 나가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6시까지 기다려서 전화를 해도 그 시간까지 아주 잠깐 나가신 분이 안 들어오신다고 그러는데 참 오늘도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지만 이것은 공무상으로 하지만 의사선생님을 찾았을 때 잠깐 나갔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적어도 업무시간은 아주 엄격하게 준수해 주셔서 저는 그것을 체크를 합니다.

제가 전화를 해서 지금 아무개 선생님 계시냐,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안 계신다고 그러면 몇 월 며칠 5시에 전화하니까 없더라, 나는 이렇게 체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무시간을 충분히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일이 있어서 나갈 수도 있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그 빈도가 잦아지면 참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노후 교체장비 입찰방법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시지요.

○院長 金權宇; 위원님께서 양해하시면 입찰방법은 우리 행정 실무자로 하여금 보고드리겠습니다.

○總務部長 金南薰; 總務部長 金南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료장비는 첫째 예산을 할 때 의료장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편성에 필요로 하는 장비들을 모두 심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또 다시 각 진료 과별로 어떤 장비를 구입할 것인가를 받아서 다시 의료장비 심의위원회에서 사실상 이것이 타당하냐, 또 이 장비의 효율성이라든지 어떤 수준까지의 장비를 살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확정된 다음에 그것을 다시 각 진료과별로 가지고 가서 그 장비에 대한 스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장비의 각종 사양이지요. 사양내용이 어떤가를 전부 작성을 해서 그 장비의 사양이 타당성 있고 맞는 것이냐, 또 우리가 환자진료에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또 앞으로 그 장비가 효율성이 있고 수익성이 있느냐, 또는 수익성이 없더라도.....

○李順子 委員; 아니, 과장님. 제가 질문하려는 제 포커스는 그런 것은 물론 하시겠지요. 그것은 ABC인데요. 그런데 뭐가 필요한가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기구를 하나 구입을 한다 그러면 그 A라는 성능을 가진 기구를 만드는 일본에도 회사가 있을 것이고 여러 군데에 메이커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초이스 하느냐 이겁니다.

○院長 金權宇;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국별로 여러 장비들이 다 있습니다. 한 장비라도 나오는 나라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있을 수 있고 일본도 있을 수 있고 독일, 프랑스,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공개경쟁이 될 수 있는 스펙을 짚니다.

여러 회사가 다 들어와서 경쟁할 수 있는 스펙을 짜 가지고 저희들이 국제입찰에 부치게 됩니다. 국제입찰에 부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하는 장비, 사양에 맞는 장비들이 입찰에 들어오게 되겠지요. 그분들 중에서도 최저로 써놓으신 분이 낙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의료장비 대다수가 전부 저희들이 직접 입찰을 하지 않고 조달청을 통해서 국제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李順子 委員; 그러면 과장님, 조달청에다가 이런 우리가 어떤 스펙을 주면 조달청에서 그것을 각 국에서 구입을 할 것이 아납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로비로 인해서 우리가 무기를 구입하는데 엄청난 돈을 많이 주었다라는 그런 시끄러운 문제가 신문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조달청에서 그런 입찰을 받을 때는 우리 강남병원이 어떤 A라는 기구가 필요하다라면 그 기구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거치잖아요. 검토를 거쳐서 이런 기구를 구입해 달라고 조달청에 의뢰를 한다 말이지요.

그러면 조달청에서 예를 들어서 1, 2, 3, 4개 회사를 선택

을 해서 그분들이 응찰을 하게 한다 말이지요?

○總務部長 金南薰; 네, 그렇습니다.

○李順子 委員; 그렇게 해서 하신 실적이 여러 가지 옛날 경험에 있지요?

○總務部長 金南薰;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종전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李順子 委員; 그러면 금년에 들어와서 한 것이 있습니까?

○總務部長 金南薰; 금년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곧 할 겁니다.

○李順子 委員; 그러면 작년에 한 것이 있습니까?

○總務部長 金南薰; 작년에 한 것이 있습니다.

○李順子 委員;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작년에 조달청에다가 어떤 스펙을 얘기해서 조달청에서 몇 개의 업체를 구해서 그 업체에서 입찰을 보게 했던 그런 실적 같은 것을 과장님 갖고 계시죠?

○總務部長 金南薰; 네, 있습니다.

○李順子 委員; 그것도 아까 자료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가지만.

○總務部長 金南薰; 네.

○李順子 委員; 그 다음에 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국비지원 예산배정의 부족으로 과다 미수금이 존치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강남구는 엄청나게 부자 동네인데 6억 700만원이 지금 밀려있어요. 24페이지, 6억 700이지요?

○院長 金權宇; 네, 그렇습니다.

○李順子 委員; 송파구도 그렇고 강동구도 그렇고 잘 사는 동네가 이렇게 많이 미납을 하고 있는데 이것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강남구 같은 데는 6억 700이라고 그러면 다른 데에는 엄청난.....

○院長 金權宇; 제가 강남구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구 환자가 특히 수송환자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이것이 시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구청 입장은 그렇습니다.

강남병원에 미수금을 주는 것보다는 한 군데에 예를 들어서 1억을 주는 것보다는 다른 의원들 작은 것은 한 200군데에 1억을 주는 것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지 모르지만 생색이 좀더 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李順子 委員; 그러면 거기는 주면서 강남병원은 이만큼 밀려서.....

○院長 金權宇; 저희가 환자가 많기 때문에 단위병원 단위로는 제일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강남구에서 저희에게 불편하게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밀린 부분이 대개 국비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李順子 委員; 이것도 120일이 있다가 지불하고 그러는 돈입니까?

○院長 金權宇; 그렇습니다. 시에서 나오는 부분은 빨리 지급이 되고 국비에서 나오는 부분은 120일 이상도 되고 그렇습니다.

○李順子 委員; 이것 우리 위원들이 강남병원을 위해서 어떻게 촉구하는 방법이 없어요?

○院長 金權宇; 옛날부터 계속 위원님께서 촉구를 해서 시비에서 나오는 부분은 굉장히 신속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비에서 나오는 것은,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주는 것은 60일, 70일 정도 되는데 요는 50%, 50%, 만약 100원을 저희

한테 줘야 한다면 50원은 시비에서 주고 50원은 국비에서 주는 것입니다.

국비에서 주는 것이 계속 밀려서 서울시 본청 주무과에서도 계속 국가에 대해서 촉구하는 것이 옛날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順子 委員; 아니, 국가가 시립병원 비실비실 하는데 말이야 예산을 120일을 넘겨서도 안 주고 계속 이렇게 딜레이 시키고 그러면 병원운영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이런 것 어떻게 촉구하는 방법 없어요?

○院長 金權宇; 그 문제에 대해서 병원측에서도.....

○李順子 委員; 요구하고 있어요?

○院長 金權宇; 네, 그렇습니다.

○李順子 委員; 요구를 어디에다 하고 있습니까?

○院長 金權宇; 심사평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다가 저희가 빨리 줄 수 있도록 하는.....

○李順子 委員; 올해 그렇게 촉구해서 공문 같은 것 발송한 적 있어요?

○總務部長 金南薰; 제도개선을 위해서 保健福祉部에 요구했습니다.

○李順子 委員; 올해?

○總務部長 金南薰; 작년도에 요구했는데 현재 保健福祉部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順子 委員; 심사숙고하면 뭘해요 우리 병원 잘 돌아가게 하려면 외상값 가져간 것 빨리빨리 갚아야지. 그러면 금년 들어서서 保健福祉部나 심사평가위원회에 빨리 제고해 달라는 이런 공문 보낸 적 있어요?

○總務部長 金南薰; 그것은 保健福祉部가 제도개선 하기 위해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順子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장님이 혼자 직접 운영하는 병원이면 이렇게 외상값이 밀렸을 때에 발벗고 나서서 가서 거기 죽치고 앉아서 받아오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 곳이 공공시립병원이기 때문에 안 걸히면 안 걸히는 대로 내가 여기에서 몸만 버티면 월급 나오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이 5월 21일입니다. 그런데 保健福祉部나 심사평가위원회에 촉구하는 공문 한 번 띄운 실적이 없다면 그만큼 편안하게.....

○總務部長 金南薰;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120일 걸리는 것은 국고와 지방비 때문에, 사실은 국고가 지방비에 배정되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그렇게.....

○李順子 委員; 글썄, 오래 걸리는 것을 자꾸 여기 말단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줘야지 그 윗사람들이 뭘 알아요. 福祉部에 있는 사람들이 뭘 알아요. 강남병원의 의사 하나가 뭐 얘기하는 소리 듣거나 하겠습니까? 자꾸 촉구를 해야죠.

시립병원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저기 보라매병원도 그렇고 강남시립병원도 그렇고 우리 이렇게 해서 재정이 어려우니 빨리 120일을 당겨서라도 해달라 하고 福祉部에 공문 한번 띄워 본 적 있느냐 이거죠.

심사위원회도 한번 띄워 본 적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27억 8,500만원이 밀려있잖아요. 그렇죠?

○總務部長 金南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順子 委員; 지금 24페이지 보면 27억 8,500만원이 밀려 있어요.

그런데 강남구 같은 데는 6억 700만원이 밀려있거든요. 이것 받으러 다녀보고 촉구하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福祉部에 전화하고 공문 띄우고 그랬느냐 말이에요. 한 번도 안 했죠?

○總務部長 金南薰; 실무자들뿐만 아니라 저희들 부장들도 다니면서 촉구하고 직접 만나보고.....

○李順子 委員; 그러면 촉구한 실적 있어요? 공문 같은 것 보낸 적 있어요? 이렇게 애로 사항이 있으니 빨리 돈 좀 보내 달라 강남구청은 강남구청 대로 보내고 복지부는 복지부 대로 이 팀 120일이 너무 기니까 병원 운영하는 데 지장이 많다, 지금 대한민국의 의사들이 120일이 너무 길다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남병원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공문 내보고 촉구한 적 있느냐고요.

전화는 했죠?

○總務部長 金南薰; 네, 전화는 했습니다.

○李順子 委員; 공문 띄웠어요?

○總務部長 金南薰; 금년도에는 아직 공문을 못 보냈고..... 작년도에는 공문을 여러 개 보낸 적 있습니다.

○李順子 委員; 아직이 됩니까? 금년 중반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總務部長 金南薰; 네, 앞으로 하겠습니다.

○李順子 委員; 앞으로나 마나 이달 중으로 보내세요. 복지부에 우리 병원 이렇게 힘든데 120일 너무 길지 않느냐, 직장에서 의료보험 돈 걷어갈 때 120일씩 참아주냐요. 월급에서 딱딱 떼는데. 그것 의료보험에서 나가는 거죠? 그건 다릅니

까?

○總務部長 金南薰; 네, 다릅니다. 국비와 지방비가 주는 겁니다.

○李順子 委員; 알았습니다. 이것 촉구하세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힘들다는 것을 해야 저 분들이 제도개선 하죠. 保健福祉部 그냥 놔두면 안 합니다.

○總務部長 金南薰; 알겠습니다. 촉구하겠습니다.

○李順子 委員;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政恩; 醫藥課長께서는 강남병원 업무보고시에 배석해야 됨에도 조금 전에 오셨습니다. 그 사유를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局 醫藥課長 趙成億; 醫藥課長 趙成億입니다.

의회 강남병원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않아 여러 위원님께 물의를 일으켜 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전국적으로 590만명, 서울시에 130만명 일제 접종이 시작된 날이라 아침부터 제 개인적으로 업무가 바빠고 2시 반부터는 서울시 치과의사회장이 업무관계로 시장을 면담하는 관계로 배석을 했고 마치자마자 제가 참석을 하였습니다.

○李順子 委員;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李政恩; 네, 李順子委員님.

○李順子 委員; 오늘 접종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바쁘서 가지고, 업무가 바빠서 참석을 못 했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保社委員會는 서울시 전체 시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시립병원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엄청난 시

민들이 직접 활용하는 병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중이
요.

거기에는 정책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예산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아니 주무국장이
나 주무과장 없는데 누구 붙잡고 앉아서 얘기해요.

강남병원 원장이 병원 운영하는 데에만 대답할 수 있지. 나
머지 정책분야나 이런 것을 다 듣고 계시다가 그런 것을 반
영해 주고 강남병원이 제대로 운영되는 데에 뒷받침을 해 주
셔야 될 의약과장이 뭐 개인적으로 바빠서 참석을 못했는데
그 이유가 접종 때문이라고요? 서울시민이 지금 전부 접종하
고 다닙니까!

또 접종 말고, 뭐 치과의사들이 업무보고를 해요? 아니 치과
의사들 업무보고하는데 의약과장님이 시장님 옆에 꼭 앉아있
어야 됩니까? 업무보고 하는 것 계장 보내도 되잖아요.

지금 위원회가 열려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일부러 참석
해 달라고 공문까지 발송하고 말이지 그런데 保社委員會가
개인적으로 바쁘면 빠져도 되는 그런 위원회예요! 무슨 말
씀을 그렇게 하세요. 사과드리면 되는 거예요, 사과! 지금
의사들이 몇 시간을 기다리고 앉아 있어요.

더군다나 국장님 안 계시면 과장님이라도, 오늘 위원회가
열리면 과장님이 여기 관련돼 있는 가장 중요한 멤버 아니
예요. 국장이 안 계신데 과장이 치과의사 업무보고하는 데 시
장 옆에 가 앉아 있어야 된다고요?

어느 것이 우선인지 구별해 보세요, 과장님 됐으면.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政恩;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렇지 않아도 각
시립병원의 업무보고시에 의약과장이 잘 참석을 안 하셔서

위원장 명의로 3월에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나 또는 현장방문시에 주무부서장이 꼭 배석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한 시간 반이라는, 지금 李順子委員님께서 화가 나서서 얘기했는데 어느 누구나 李順子委員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도 똑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정회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앞으로는 어떤 바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처사로 하시지 말고 우선순위가 의회다라고 생각하시고 배석에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李英順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英順 委員; 金權宇院長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계노인복지관에 관한 것인데요. 며칠 전에 위탁건 때문에 현장을 방문하고 중계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를 현장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문제를 제 시각에서 제기를 해 보고자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느낌이 일반 노인요양원하고 전문성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 중계노인복지관의 어른들의 전반적인 상태가 별로 그렇게 전문성을 투여했다고 해 가지고 건강의 효율성 라든가 생명의 효율성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직원들의 분포도를 보면 간호사가 15명, 물리치료사 3명까지 합해 보면 18명이 278명의 치매노인을 비롯해서 중풍노인들을 돌보고 있는 이런 복지관인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오히려 전반적인 어떤 효율성에 비해 가지고 간호사 숫자가 많다라고 느껴집니다.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원장

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년간 사망률이 54%가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가. 이렇게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은 요양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사망률이 별로 그렇게 낮은 것이 아니고 거의 똑같다고 했을 때에 굉장히 중증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간호사를 지나치게 많이 둘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물리치료라든가 또는 어르신들에게 좀 릴렉스를 통해 가지고 그 분들 치매에 걸린 부분이라든가 노후에 오는 여러 가지 당신들의 어떤 건강부분을 즐겁게 재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치중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院長 金權宇;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다른 일반 노인요양원보다 질이 더 높지 않다 하는 말씀은 깊이 새겨 들겠습니다만 역시 저희가 맡는 환자가 중증이고 복합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54% 정도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고 참고로 사망 평균나이 81.3세입니다.

돌아가신 어르신들의 사망 평균나이가 81.3세라면 그렇게 낮은 나이는 아니고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사항은 제가 연구과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李英順 委員; 상계동에 있는 시립노인요양원 그 상태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 우리가 물론 굉장히 주안점을 뒀어야 되겠지만 치매가 오는 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이나 외로움, 이런 부분에서 오는 요인도 일정하게 많고 이렇게 때문에 저는 치매나 중풍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재활 프로그램에다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

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중증환자일 경우는 아까도 洪承采委員이 질의를 했을 때에 그런 중증환자는 강남병원으로 이송해 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강남병원이 중계노인복지관을 위탁하고 있는 그런 강점인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호사가 많다고 하는 부분 그 자체는 비용도 전체 효율성에 비해서 많이 든다, 비용을 적게 들이고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병원이 하기 때문에 병원이 가질 수 있는 강점 물론 중요하게 투여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병원이 맡고 있는 그 전문능력에 비해서 중계노인복지관이 이 부분에 관한 운영의 효율이 그렇게 전문가를 투여한다고 해서 강점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정신과 의사 한 사람, 또 내과전문의 한 사람 이렇게 두 분이나 상주시켜 가면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강남병원이 맡고 있기 때문에 의사 한 분으로라도 의사 한 분만 상주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재활프로그램에 관한 적극성을 보이면 오히려 그런 부분이 강남병원이 위탁하고 있는 중계노인복지관의 강점을 저는 살려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전반적으로 우리가 노인복지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복지에 관한 그런 수용시설의 효율성을 같이 우리가 점검을 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점검을 적극적으로 하

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院長 金權宇; 염두에 두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政恩; 李英順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高明坤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明坤 委員; 먼저 김근우 원장님의 국무총리 표창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 동안에 병원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개인적으로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강남병원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병원 중에서 가장 독특하게 하나 있다면 국제원격의료서비스의 본격시도, 소위 소마코리아에서 장비를 도입한 문제, 이 문제가 상당히 특이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제가 원장님께 하겠습니다.

이 소마코리아가 같은 장비를 국내 병원 어디에 설치를 했습니까?

○院長 金權宇; 기획단계에서는 연세대학 쪽에 할 것으로 저희가 알았는데 아마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高明坤 委員; 소마코리아가 1999년 8월 7일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소마코리아에서 이런 장비를 시범 케이스로 강남병원이 받아야 할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院長 金權宇; 일단 의학도 지금 세계화되는 추세에 있어서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제 생각으로는 이것도 국제화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또 특별히 외국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하는 것이 우리 병원의 의약발전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우선 시

범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많은 부분 환자들이 한국에서만 의견을 구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난치병 같은 것은 세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수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高明坤 委員; 그 당시에 계약한 날짜가 99월 8월 7일인데요. 99년 8월 7일은 IMF가 터져서 우리 나라가 그야말로 거의 빈사상태에 와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院長 金權宇; 그렇습니다.

○高明坤 委員;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소마코리아의 제품을 유일하게 강남병원이 해야 할 이유가 저는 특별히 있었다고 보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院長 金權宇; 저희가 구매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공급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별 문제가 없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高明坤 委員; 아까 李順子委員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면서 들어간 돈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지요?

○院長 金權宇; 그렇습니다.

○高明坤 委員; 원장님은 지금 이 소마코리아와 관계한 계약서를 한 번이라고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소마코리아의 계약내용을 볼 것 같으면 10평을 제공하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전기하고 시설유지비를 강남병원이 제공하게 되어 있지요? 담당의료책임자를 배정하게 되어 있지요. 스태프 두세 명을 이 부분에다가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강남병원이 지금 1년 10개월 동안 운영을 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한푼도 없다라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요?

○院長 金權宇; 거기에 의사가 맡아서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高明坤 委員; 그렇다면 소마코리아의 제품을 하기 위해서 10평의 공간을 사용했다면 강남병원의 전체 관리비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한 포지션, 그 다음에 전기시설유지비, 그 동안에 수 차례의 시험과 실제로 3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유지비, 그 다음에 직원 2.3명에 대한 다른 업무를 못 보는 로스분, 이런 부분은 1년 10개월간의 투입비용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院長 金權宇; 엄밀히 회계상으로 얘기를 하면 들어간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高明坤 委員; 그런데 아까 李順子委員이 질의했을 때는 모든 것은 소마가 다 하기 때문에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런 보고를 밑의 부장이 하셨다면 부장에 대한 경고를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院長 金權宇;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병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한 회계수치로만 이것을 판단하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高明坤 委員; 원장님, 이게 99년 8월 7일이면 IMF로부터 무려 10개월 후입니다. 우리 나라 의료계가 달러 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 의료장비도입을 전부 보류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소마코리아 제품을 강남병원이 국내에서 가장 선두에서 가지고 이런 장비의 공간을 제공해 주고 시설대여를 해 주고 직원을 여기다가 의뢰해 가지고 지금은 1년 10개월이 지나서 겨우 3명의 진료를 하고 있는 이 소

마코리아의 장비가 강남병원에서 시험 가동되는 이런 테스트 장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보세요? 원장님 입장을 분명히 해 주세요.

거의 1년 10개월의 투입비용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내용은 그것은 원장님이 아마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이 된다면 담당부장이 보고를 잘못했거나 담당부장이 보고를 위증하고 있거나 은폐하기 위해서 내놓는 얘기를 듣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院長 金權宇;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高明坤 委員; 그 당시에 강남병원의 결재서류를 보면 강남병원의 총 진료이사, 관리이사, 원장님, 감사, 기획연구부장, 원무부장, 박세웅팀장 전부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들을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종합의료정보시스템이라는 용역 관련 계약서 서류를 죽 봤는데 이 서류의 결재자가 강남병원에는 원장이 2명이 있지 않나 할 정도로 의아한 서류들을 제가 보고 있어요.

이것 한번 갖고 가서 복사해서 돌려주세요. 강남병원의 용역 계약서에 결재란에 보면 윤두근이라는 사람이 병원장 라인에 가서 사인이 딱되어 있어요.

이것도 보여 주세요. 맞지요? 병원장 라인의 결재란에 윤두근이라는 사람이 사인을 해서 서류가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윤두근 부장이 현재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부서에 가 있습니까?

○院長 金權宇; 퇴직했습니다.

○高明坤 委員; 퇴직했습니까?

○院長 金權宇; 작년 6월에 퇴직했습니다.

○高明坤 委員; 상당히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됐어요. 앉으세요.

소마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마가 계약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院長 金權宇; 지금 서류를 안 봐서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계약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高明坤 委員; 제가 계약서에 확인을 해 보니까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어느 병원도 이 소마제품에 대한 테스트의 장이 되지 않으려고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방공사 강남병원이 소마제품의 총대를 멘 원인을 원장님은 분명히 재조사를 시켜보셔야 할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제가 다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이 계약서를 수차례 읽어봤고 또 현재 원장님이 하고 있는 소마에 대한 기대감, 여타 병원에도 제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기대한 만큼 특히 IMF에 정말 온 국민이 신음하고 있을 때 소마코리아를 대신해서 10평의 공간을 제공해 주고 직원 2.3명을 배정해 주고, 그리고 이제 와서 1년 10개월이라는 지금에 와서 3명 정도 해서 원격진료를 했다는 결과를 놓고 볼 때는 분명히 소마의 제품 자체의 신뢰성도 문제이지만, 강남병원의 도입정책의 실패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께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院長 金權宇; 저는 이 시스템이 발전되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高明坤 委員; 지난번에 원장님 업무보고에는 UCLA, UC-Davis, UCSF-Stanford 이렇게 세 군데에서 1명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자료에는 UC-Davis만 나와 있어요.

지난번 자료하고 왜 이런 차이가 났지요?

○院長 金權宇;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전문가가 있는 병원이 자동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UC-Davis에서 그 분야에 전문가가 있으면 UC-Davis에서 할 것이고 UCLA에 당해 전문가가 있다면 그쪽에서 할 것이고 대개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정합니다.

○高明坤 委員; 지금 5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 장비의 수준이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강남병원이 전부 아날로그 제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디지털로 변경을 해야만 된다고 얘기를 했지요. 맞습니까?

○院長 金權宇; 네.

○高明坤 委員; 그렇다면 강남병원에 있는 모든 장비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여러 병원들이 특히 서울시의 의료정책에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이러한 원격화상서비스는 조기에 철회되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께 어떤 특단의 대책을 제가 분명히 요청을 드립니다.

조만간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이든 어떻든 간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院長 金權宇;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高明坤 委員; 그 다음에 강남병원이 현재 28억원에 해당하는 전산소프트웨어 운영계약이나 구축계약을 1999년에서 2001년 사이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종합의료시스템 구축용역 계약이라고 해서 12억 2,000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든 계약자는 윤두근 씨입니다.

그런데 2002년 7월 1일에 계약이 되었는데 2002년 6월 30일까지 2년간 계약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구축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60개월 분할로 대금이 균등 지급하게끔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계약은 특혜가 아닙니까?

○院長 金權宇;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계약담당관으로 해서 대신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전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政恩;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高明坤 委員; 거기에 지금 나오시는 누구시지요?

○電算課長 石基浩; 전산과장입니다.

○高明坤 委員; 지금 종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용역 계약에 보면 지금 석기호 씨는 정보관리담당으로 되어 있고, 이 서류에 기안자는 이종호 씨고 박춘규 씨, 윤두근 씨, 이석원 이사, 감사팀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윤두근이라는 사람 퇴직시켰다고 그랬지요?

○院長 金權宇; 정년퇴직을 했는데 그 분이 계약담당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류 자체는 계약담당관이 사인할 전결서류이기 때문에 원장사인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高明坤 委員; 60개월 분할균등 했던 내용 얘기해 보세요.

○電算課長 石基浩; 지금 저희들 시스템을 파워서비스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파워서비스하고 소프트웨어적인 파워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소프트웨어적인 파워서비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2000년 7월부터 해 가지고 2002년 6월까지를 계약했고요. 재구축 병행에 따라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개선 하겠다는 주목적에서 했습니다.

○高明坤 委員; 아니, 내용은 알겠고 왜 소프트웨어 개발이 7억, 하드웨어 구축비는 5억, 12억으로 계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발되지도 않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60개월로 균할분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하셨냐 이거죠.

○電算課長 石基浩; 이것은 저희들이 95년도부터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것을 전산용으로 보면 파워서비스라고 그리고 요사이 용어로 보면 SI 내지는 SM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 병원에서 자체 서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발한다손치더라도 실제적인 개발에 필요한 서버도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시스템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시불로 초기투자비용이 12억이든지, 이십 몇 억인지 그렇게 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총금액인 12억 2,000만원을 갖다가 60개월, 즉 5년으로 분할 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요사이.....

○高明坤 委員;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게 완료가 돼서 납품이 돼서 검증을 받은 다음에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처음부터 60개월을 할부로 지급해서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느냐는 내용이에요. 이런 계약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시스템관리 용역계약을 16억에 했는데 이것은 5년간 계약을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정업체 ICM이라는 회사에 이 두 가지 계약 28억이 다 가 있어요.

지금 이 서류에는 관련 강남병원의 간부들이 전부 사인했
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ICM이라는 회사가, 1999년 3월 IMF 직후죠.
이런 데에다가 SM 계약을 하면서, 5년 계약하면서 16억
2,000을 계약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는 또 ICM에다가
12억 2,000 계약하면서 60개월 분할 대금 지급계약을 하고,
지방공사 계약규정에 이런 규정이 다 맞습니까? 지금 계약담
당 하시는 부장님, 이 내용이 맞습니까?

○總務部長 金南薰; 저희들이 초기투자비라든지 예산을 가지
고 있지 않기 때문에 ICM에 있는 모든 전산장비를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체 투자비를 들이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 분들의 초기투자비에 해당
되는 부분만큼을 보전해 주는 방법을 60개월에 나눠서 분할
해서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을 재
구축을 하고 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자체도 ICM
장비들을 모두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高明坤 委員; 알고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ICM이라는 회
사하고 수익계약을 하셨죠?

○總務部長 金南薰; 네, 그렇습니다.

○高明坤 委員; 지금 이런 전산장비를 빌려주면서 아웃소싱을
하는 그런 병원관리업체들이 많은데 ICM이라는 데에 굳이
두 건씩이나, 지금 계약시점이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었습니
다.

99년 3월, 2000년 6월, 그야말로 이 SI 관련업체들이 상당
히 어려운 시점에서 ICM에 28억씩이나 특혜를 주면서 그것
도 전부 60개월 분할균등 대금 지급, 또는 24개월 분등지급,

이런 식으로 해서 업체의 경영을 도와줬다는 그런 의혹이 들 정도로, 이 서류를 보고 말이죠.

나는 그래서 ICM하고 수의계약을 해 둔 사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장님께서 종합의료정보시스템구축 계약에 관한 견적서가 있을 겁니다.

○總務部長 金南薰; 저희들이 하게 된 동기는 당초에 전산시스템을 도입할 때에 ICM 하고 처음 도입해서 종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장비 자체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분들로부터 계속 관리를 위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탁해서 그 분들로부터 관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高明坤 委員; 그러니까 그 수의계약을 ICM이라는 유사한 회사가 서울에 많이 있는데 여기에만 이렇게 특혜를 28억씩이나 줘서, 지금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지방공사뿐만 아니라 여러 병원들이 있지만 전산분야가 가장 앞서 있는 분야가 보라매병원입니다.

그런데 왜 지방공사 강남병원만 이런 독자적인 개발을 해서 28억씩이나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보라매병원에 가면 그런 소프트웨어가 잘 돼서 강남병원에 맞게끔 컴버전 하면 돈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독자적으로 28억씩이라는 돈을 이 어려운 때 투자해 가지고 2002년, 2004년 가서야 완료가 되느냐 이겁니다.

강남병원이 500실 규모면 국내병원 중에서 중상위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의료정보 소프트웨어 하나 개발이 안

돼 가지고 의뢰해서 이제 2004년에 가서 개발이 완료된다는 보고서를 접할 때.....

○總務部長 金南薰; 위원님, 저희들은 8년 전에 이미 종합의료정보시스템이 구축이 돼 가지고 그에 따라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작년도에 이것을 8년간 쓰다 보니까 도저히 더 확장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모든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의료에 여러 분야도 변경됐기 때문에 그것을 재구축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기존에 쓰고 있던 장비를 계속 활용함과 동시에 재구축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관리해 주고 있는 회사로부터 다시 재구축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에 와 있었던 겁니다.

○高明坤 委員; 지금 제가 볼 때는요, 16억에 12억, 28억을 여기에 투자해서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보라매병원의 소프트웨어를 컴버전해서 쓰게 되면 이런 비용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지방공사 강남병원이 현재 전산인원이 몇 명입니까? 여섯 명 아십니까, 그렇죠?

○總務部長 金南薰; 네.

○高明坤 委員; 여섯 명이면 상당히, 내가 직원들 캐리어를 보니까 그래도 굉장히 공부를 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 여섯 명에서 전산분야 전부 아웃소싱해 가지고 28억씩 투자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장비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소프트웨어 용역, 기존에 보라매 병원에 돼 있는 것 서로 업무연계해서 갖다 쓰고 좀 컴버전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굳이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28억씩이나 낭비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院長 金權宇;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라매병원 이전, 몇 년 전에 저희가 시작했기 때문에 보라매병원 것을 지금 컴버전한다는 그것은 조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高明坤 委員; 그게 업무에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院長 金權宇;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점은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보라매병원은 서울대학병원하고 계약에 의해서 필요한 예산을 언제든지 保健福祉局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저희는 공사이기 때문에 예산상 경직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짜내서 저희가 한 것이지 이것이 무슨 특혜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高明坤 委員; 네, 원장님 자료를 두 개만 요청합니다.

종합의료정보시스템구축 계약에 관한 견적서가 있을 겁니다.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12억 2,000 제안된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적서 사본을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ICM이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공개적으로 내놓은 자기 회계자료, ICM이 공개적으로 대외에 내놓은 회계자료를 한 부 보내 주세요. 제가 그것을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院長 金權宇; 네, 알겠습니다.

○高明坤 委員; 그 다음에 醫藥課長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 병원들의 전산화문제를 매번 상임위 있을 때마다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 醫藥課長께서는 그 동안에 어떠한 역할과 어떠한 준비를 해 오셨습니까?

○保健福祉局 醫藥課長 趙成億; 醫藥課長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 시립병원의 전산화는 병원 신축하고 연관이 있어 가지고 일단 금년에는 아동병원에 보라매병원 전산망을 이식하는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고요.

은평병원이 8월 말에 건물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어서 그 시점에 맞춰서 작업을 시작할 것이고, 동부병원과 서대문병원도 건물이 준공되는 시점을 맞춰 가지고 보라매병원 전산망을 이식하는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高明坤 委員; 특히 은평병원이 지난번 임시회 때 저희한테 업무보고하는 중에 보면 소프트웨어 거기도 외주를 주겠다고 나와서 제가 그 날 제동을 걸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과장님께서 최근에 신설되는 병원들에 대해서 병원업무전산화에 관련한 소프트웨어들은 강남병원이든 보라매병원이든 간에 전산화가 잘 돼 있는 병원쪽을 모델케이스 해 가지고 직원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어떤 호환성까지도 같이 가져감으로 인해서 병원들의 투자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어떤 의료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이 병원들의 과투자나 중복투자로 인해서 서울시민의 세금이 낭비된다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醫藥課長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병원의 전산관계자들의 재교육을 통해서 질을 높이고, 또 그들에 대해서, 이제 막 개원하는 병원들에 대해서 전산 투자를 중복투자 않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保健福祉局 醫藥課長 趙成億;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政恩; 高明坤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네, 李禮子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禮子 委員;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간단한 것, 그렇지만 병원의 아주 근본적인 것 그런 질문을 하나 여쭙보겠습니다.

환자가 왔을 때 병원의 의사들이 환자를 뭘로 보느냐 저는 이것을 여쭙보고 싶은데요. 환자가 왔을 때 어느 정도 이 사람을 치료해 주면 병원의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있느냐 그런 것인데요.

우리도 여기 보니까 정형외과도 있고 재활의학과도 있고 그러신 것 보니까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몸의 일부가 어떻게 됐다든지 이런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보고를 보니까 의사들은, 어떤 사람이 몸의 일부가 어떻게 교통사고가 나서 심하게 손상이 됐다든가, 또 다리에 마비가 와서 하반신을 못 쓰게 됐다든가 그런 것을 누가 예측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그 당하는 당사자한테는 굉장한 충격이고 그 사람 일생 전체가 달린 문제이지만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또한 사람의 환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혀 그 병원에서 해 줄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치료 그런 것은 다 받는데 이제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겪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 전혀 병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 과정 중에 병원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자살을 했다, 그게 극단적인 예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관심을 어느 정도 가져야 되는가.

그래서 의사이지만 동시에 어쨌든 내게 맡겨진 생명이고 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목사님이 하는 역할을 의사선생님이 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거기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병원이 이런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해 주는 게 좋을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남병원은 그런 환자에 대한 관심, 어떻게 치료해 주면 우리가 강남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보시는지 그런 소견을 원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院長 金權宇; 위원님 질문이 사실 제가 제일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아주 철학적인 질문이신데요. 제가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 또 제가 밑에 거느리고 있는 의사들, 또 저의 선배의사들이 참 이게 문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답변을 우회로 해서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옛날과 같이 소위 의사숫자가 적을 때는 의사가 왕의 대접을 받았는데 지금은 의과대학 수도 많고 또 시민사회가 성숙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관계가 역전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의사가 더 낮아지고 환자가 높아지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아직까지도 의사세대간에는 의사들이 역전되는 이 상황을 모르고 있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체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환자를 나와 같이 생각하는 바람직하다면 내 가족 같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에까지 도달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만 의사란 직업 자체가 상당히 개인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각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장이 맡고 있는 또는 수련생이라든지 의사들은 될수록 그런 면이 부각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李禮子 委員; 그러면 의사들이 의약공부를 할 때는 그런 면

에 대해서 받는 교육은 없습니까?

○院長 金權宇;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교육이 상당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과대학 커리큘럼을 보면 그런 면이 기술 쪽에 좀 치우치고 있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수련 받은 학생시절을 보낸 의사들을 저희가 맡아서 할 때는 그것까지 떠맡아야 되는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李禮子 委員; 그러면 강남병원의 진료방향은 지금 원장님의 말씀이 확실치 않게 들려서 여쭙어 보는데 원장님은 그런 방향으로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노력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院長 金權宇; 그렇습니다. 환자를 나나 내 가족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李禮子 委員; 그렇죠. 그것은 의사 선생님께서 가지셔야 하는 당연한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 그렇지 못하다고 하셔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의사가 되실 분들은 그런 생각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거듭되는 질문 같지만 병원이 환자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뭐라고 그럴까, 아까도 철학적인 표현을 썼지만 그것 하나를 병원 그 자체만 꺼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인간을 봐서 어떻게 이 병원에 온 사람이 여기에서 치료를 받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런 것에 어떤 급박한 사건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이것을 환자가 잘 받아들이고 병원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하지 않는 그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저는 병원

의 의무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환자한테만 맡겨놓고 그것은 너 개인에게 일어난 일이니까 네가 다 책임을 져야 한다, 저는 의사로서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요즘 의사를 보는 우리의 옛날만큼 존경심을 갖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것과는 별도로 병원은 병원대로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강조를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우리가 시립병원이라고 한다면 다른 병원보다 더 강조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평가제 같은 것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의사인 경우에는 굉장히 전문직이고, 또 그래서 이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수익실적을 의료직 전문의, 전공의 해서 진료성과급제하고 수익실적, 환자만족도 평가,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실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院長 金權宇; 정확히 말씀드리면, 각 수익실적이라는 것은 각 과에서 의사 개인이 벌어들이는 수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李禮子 委員; 그런데 그게 의사가 벌어들이는 수입을 갖고 의사실력을 판단하는 판단기준이 되나요?

○院長 金權宇; 그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 잣대로 경제적인 잣대, 경영적인 잣대로 보면 그것이 하나의 평가기준이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의사를 보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덕적인 잣대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요즘은 시장경제시대라

고 그러니까 이것은 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정부 모든 부처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잣대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李禮子 委員; 그렇지요. 저는 의사의 평가를 수입으로 이렇게 규정을 지어서, 하여튼 저는 전체적으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기준자료가 있으시겠지요. 제가 그것을 한번 평가기준을 받아 보고 싶은데요.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院長 金權宇; 네, 드리겠습니다.

○李禮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政恩;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남병원 주요현안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남병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되거나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책입안 또는 업무추진과정에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업무협이나 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5월 22일에는 가락농수산물검사소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7회 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6時 37分 散會>

○出席委員

李喆鎬 高明坤 李政恩 姜榮元

金種求 閔鍊植 李英順 李禮子

洪承采 李順子

○專門委員

安錫洙

○出席公務員

江南病院

院 長 金權宇

總務部長 金南薰

電算課長 石基浩

保健福祉局

醫藥課長 趙成億

中溪老人福祉館長 金貞均